

추석

가정예식

신앙고백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함 께



기 도 가족 중에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웃음 가득한 날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감사와 격려를 나누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갈등 속에서 힘겨워 하는 이웃들을 붙드시고,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며, 특별히 최근 홍수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 속히 일상과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름달처럼 넉넉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65:11-12 가족 중에서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설 교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설 교 자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 께



주의기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본문은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 해의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거두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 아프고 힘든 날이 있었고,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신 은혜의 관입니다.

본문은 또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생명과 풍요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뜬 것, 일할 힘을 얻은 것, 어려울 때 곁을 지켜 준 가족과 이웃이 있었던 것,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5편은 풍성한 곡식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한가위에는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용서를 나누어야 합니다. 농친 감사를 되찾고, 서운함은 풀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가족의 풍성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최근 큰 홍수로 많은 살아 있는 무덤을 거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그 한편에서 우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 풍요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뒷모습 뒤에는 위로가, 우리의 손길에는 도움이, 우리의 만남에는 기쁨과 평안이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 욕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b)**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셔서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걷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족과 이웃, 세상의 길목에 주의 은혜가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식